



박 순 조 / 임업연구원
산림생물 부장

환경문제와 애국심

(環境問題와 愛國心)

1. 서언

우리민족은 옛날부터 자연환경을 사랑하고 국토에 대한 사랑이 남달리 강할뿐 아니라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어느 민족보다 강한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많은 가정에서 무궁화 꽃으로 수를 놓은 한반도를 액자에 담아서 장식용으로 방안에 걸어 놓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우리의 문학 작품도 아름다운 국토환경을 무대로 자연을 사랑하고 고무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일제 36년간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하여 막강한 일본제국 주의자들과 싸워온 선열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조 5백년이 망하여 갈 무렵 고종황제가 승하하였을 때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서울에 올라와 덕수궁에서 경복궁까지 양 대로변에 부복하여 통곡하였다고 하지 않았던가?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삼천리 강토 금수강산(三千里疆土 錦繡江山) 또는 화려강산(華麗江山) 등으로 우리 자연

환경과 국토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지 않았던가?

2.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이러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볼 때 우리국민은 자연을 사랑하고 애국심에 충만되어 있는 국민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요즘은 지구 규모의 폭발적 자연 파괴가 놀라울 정도로 한국이라는 좁은 국토 공간에서도 심각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인류에 의한 자연 파괴 행위는 지구를 죽이는 암과 같은 병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쪽이든 자기 생명을 떠나서 살아 갈 수 없는 일심동체인 어머니 생명체인 지구의 배속에 들어 있는 태아적 존재인 인류가 어머니의 생명과, 질서, 통일을 문란시키면서 모든 생명체의 리듬을 미치게 만들어 최후에는 모자(母子) 즉, 지구와 인류가 전부 사멸(死滅)하게 될 슬픈 자살 행위를 향하여 나가고 있다. 오늘의 인류는 지구라고 하는 큰 생명체에 기생하는 초악성 암세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지구 생명에 암세포를 지구 전체에 퍼지게 하여 암병의 말기적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제까지 인류는 아무 죄도 없는 아름다운 자연을 동반자로 자멸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아무 인과(因果) 관계도 없이 이런 슬프고도 무서운 결과에 도달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그것은 인류가 인류 전체로서의 존재의식과 생존목적을 전부 잊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인류가 존재하여야 할 본래의 절대목적을 상실하고 나만 놓고 평안히 먹고 사는 것이 탐이 나서 시작된 인류 상호간에 우열 경쟁이 원인이 되어 승자(勝者)와 패자(敗者)가 확실히 나타나는 현실 사회의 모순이 확대 반복되면서 재물획득 경쟁이 바로 자연 파괴의 원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진실한 사명은 풍요로움에 의한 마음에서 밝게 웃는 얼굴이 인류만의 고유의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대자연의 존엄과 아름다움이 생명을 이

어 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생물계에서 가장 진보된 지구환경의 보호자라는 의식은 잊어버린 채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는 말하자면 대자연이라고 하는 극장의 관객(觀客)으로서 완비된 대자연의 무대 안에서 큰 행복감에 젖어 다만 이런 대 자연을 만들어 주신 조물주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를 열창 반복하면서 살아가야 옳을 것이다. 인간은 출생하면서부터 어떠한 다른 생물보다 우주 제일의 복을 받고 태어난 축복 받은 행운아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물욕의 필요성 때문에 자연 파괴를 하여간다면 어떻게 지구상에서 축복 받은 생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지구로부터 자기 존재 이유를 잊어 버린 인류가 자연을 파괴하여 감으로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인류의 일대 비극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지구와의 공동체인 인류의 사명을 망각하고 많은 여가를 갖게 된 것을 기화로 당연히 자연미의 탐구나 자기 내면을 향상 발전시켜야 할 왕성한 에너지를 인류동지간의 생존경쟁이라는 외면적인 것에만 치중하여 나 이외 전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은 떠나가고 사람만이 갖고 있는 이기심으로 더 많이 더 많이 라고 부르짖는 향상욕구(向上欲求)가 자기사랑이라고 하는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결

합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 가자, 교활한 이기심으로 뭉쳐진 인류가 서로의 직접충돌은 피하면서 현명함을 가장한 전쟁이 경제전쟁으로서 새로운 경쟁수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죄가 전혀 없는 자연을 전쟁대리자로 만들어 전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대리전쟁은 당사자간에는 직접적인 고통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 없이 확대되어가는 숙명을 갖고 있다. 쌍방 대리자 모두가 전멸할 운명의 그 날까지!

이상이 인류가 자연계 유일의 악성 암 세포로 전락한 이유가 되겠으나 요는 환경문제는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물질세계의 문제가 아니고, 편협한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세계와 결합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부자연으로 되어버린 환경을 원래의 자연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노력에 앞서 부자연(不自然)이 되어 버린 인류의 마음을 자연 상태로 되돌리고 이기심을 근절시키는 것만이 인류멸망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3. 결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우리들 자신이 언행을 통하여 교육을 하지 않는 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없다. 우리 교육자체가 경쟁과 이기심으로

가득찬 교육계획에 의하여 편성되어 있다. 먼저 자연이 있고 내가 있음을 알게 교육하자. 자기만 아는 이기심이 자연 파괴를 선도하는 주범임을 알게 하자.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고, 담배 꽁초 하나라도 길거리에 버리면 환경파괴를 자초하는 공해임을 알게 하자.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이 이기심을 버리는 첫걸음을 알게 하자. 애국하는 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종이 한장을 아끼고 질서를 지키고 나무 한그루라도 정성껏 심고 가꾸는 것이 애국심을 교육하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이기심을 근원에서부터 차단하고 백해무익한 경쟁과 물질적 충족만을 추구하는 이기심이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범임을 알게 교육하자.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가짜 애국자가 많다. 각자가 묘안을 짜내어 병역을 기피한 자들이 가장 애국자인양 떠들어 댈다. 후손을 생각하지 않고 자원을 가장 많이 낭비하고 있는 자가 자연환경보호의 선구자인양 떠들어 댈다.

일찍이 자연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이기심이 전혀 없었고 애국심으로 충만 되었던 한민족으로 다시 돌아 가자. 우리의 후손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하여 적은 것 부터 실천하는 참 애국자가 되자.